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會長 沈宜洛
編輯人：文化理事 沈載緒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7-9339
FAX：(02)2269-7755
印刷：청송그래픽스
(02)2261-0772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謹賀 2012(壬辰) 新年

新年辭



沈宜洛
大宗會會長

희망찬 2012년 임진(壬辰)년 새아침에 존경하는 전국종인 여러분에게 세배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1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황과 유럽의 재정위기 한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가 1조 333억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로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서민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듯하며 지난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이런 상황은 금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20개국이 정권교체를 위한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정치경제·안보의 불확

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종회도 작년은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대종회는 창립 후 40년 동안 역대 회장단의 헌신과 종인 여러분의 협조로 반석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근년(近年)에 들어 재정 수입원인 찬경회관의 임대 저조와 은행 금리의 인하로 재정이 악화되어 2011년 4월 현재 연말까지 약 6,000만원의 적자가 예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누적될 우려가 예상되어 그 대책으로 지난 6월에 집행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상근이사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급여와 수당도 봉사자의 자세에 적합하도록 인하 또는 폐지하고 자동차 운행과 기타 부적절한 관행 등도 개혁 하였습니다.

1차년도인 2011년은 적자를 해소하고 2차년도인 2012년은 장학금 5,000만원을 적립하고 3차년도인 2013년부터 매년 장학금 5,00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조성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행히 2011년은 적자 예상에서 약간

의 흑자로 결산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조정 덕분에 있었으나 임원회비를 비롯하여 많은 종인들께서 각종 성금을 예년 보다 많이 보내 주시었고 특히 안효공종회에서는 중보성금으로 1천만 원씩 기탁 하도록 운영위에서 결의하고 2011년분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런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종회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함으로서 여러분의 성의에 보답 코져 우리 집행부에서도 수신제가(修身齊家) 하는 자세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종인 여러분! 금년에도 배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부귀와 풍요를 상징하는 용(龍)의 해입니다.

우리 대종회와 전국 종인 여러분의 가정마다 서기(瑞氣)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하면서 새해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年 壬辰 元旦
大宗會會長 沈宜洛 拜

謹賀新年

일가여러분! 壬辰 새해에도 家內에 萬福이 가득하시고 萬事亨通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 顧問：魚澤 成澤 庚周 鍾燮 晶求 宜燮 載鴻 載榮 (8명)
- 指導委員：宜斗 相明 相弼 達燮 宇永 大平 勳鍾 漢竣 龍俊 允宗 (10명)
- 名譽會長：斗燮
- 會長：宜洛
- 副會長：相和(상임) 相郁 相殷 相德 贊求 完求 甲輔 (7명)
- 監事：載冕 春植 載烈 (3명)
- 執行部：總務理事 在根 財務·文化理事 載緒 (2명)
- 有司：青松：能光 琬澤 咸悅：正秀 安城：光澤 漣川：良燮 淸州：載龍 (6명)
- 理事：(서울) 勇鎭 相默 相學 相翰 相慶 相祚 相烈 暎求 泰燮 佑燮 亨求 奉燮 載求 百燮 星求 光燮 正燮 洪燮 光燮 雄燮 容圭 完圭 三圭 載洪 載金 殷植 元植 載澈 載德 愚夏 愚龍 春輔 光輔 英輔 昌輔 勳輔 種福 賢輔 義用 重澤 (40명)
- (釜山) 宜景 相均 載德 載榮 萬仁 成燮 (6명)
- (大邱) 湖澤 烜燮 護雄 賢錫 成澤 (5명)
- (大田) 宜哲 逸燮 玄根 揆燦 揆善 (5명)
- (仁川) 在安 相直 相圭 相振 駿求 德求 大植 佶燮 慶燮 應茂 載善 炯茂 江水 左輔 善輔 (15명)

- (光州) 在均 相八 鍾德 觀燮 憲燮 駿燮 鎮植 石竣 愚慶 在益 禎燮 (11명)
- (蔚山) 隆求 英求 應輔 守輔 (4명)
- (江原) 萬澤 相汶 相祐 相夏 相鴻 東燮 敏燮 仁燮 晞燮 載求 茂植 東出 正輔 愚弘 (14명)
- (京畿) 永澤 龍澤 炳澤 相龍 相億 相勳 相英 相弘 相贊 相烈 相雨 相國 相華 相厚 相濟 鍾赫 鍾洪 彥村 康燮 良燮 晟求 求亨 仁求 應夏 政燮 一用 洵燮 明燮 龍燮 虎燮 胤燮 德燮 炯燦 伯綱 載烈 載萬 載滿 載勳 禹植 載玉 允輔 錫鎔 光輔 元輔 元輔(김포) 完輔 聖輔 昌輔 上銀 宗玉 泳淳 泳秀 文錫 (53명)
- (忠北) 相昊 相鶴 中來 成來 興燮 鍾燮 載武 載德 載榮 明彥 成輔 揆完 (12명)
- (忠南) 甲澤 允澤 仲根 仲燮 載善 載令 載重 泓植 永鍾 (9명)
- (全北) 相泳 相哲 相根 鍾默 鍾根 相貴 斗燮 仁求 載政 載學 哲植 安輔 秀永 秀一 尙道 (15명)
- (全南) 相錄 行燮 貞燮 正植 (4명)
- (慶北) 宜石 在叔 相國 相燻 相學 遠燮 載洪 載德 載玉 載浩 載根 容爽 花鮮 南圭 (14명)
- (慶南) 在圭 東燮 吉燮 柱燮 鎮奎 點輔 揆實 (7명)
- (日本) 廣燮 (1명) ※이사 계(215명)

※대종회 총 임원 : 253명

2012年 1月 1日

青松沈氏大宗會 任員 一同

新年辭



仁壽府尹公派宗會
會長 沈晶求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희망찬 임진(壬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늘로 솟아 오르는 흑룡의 기운을 받아 일가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 우리 사회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백년만의 집중폭우, 청년실업, 물가폭등, 이웃 나라 일본의 쓰나미, 리비아, 이집트 등 장기 독재정권의 몰락, 유럽 발 재정위기 등, 실로 감내하기 어려웠던 여건 하에서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333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달성하였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특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가 현명한 판단과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일가 여러분!

우리 종회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3처산소(三處山所)의 수호와 종재 관리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망세정공 묘역 관리를 20여년 전에 건립된 묘막을 새로이 신축하여 우천시 향사는 물론 제반 묘역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 더욱 괄목할만한 것은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소재한 국유지 410여평의 토지를 국가를 상대로 끈질긴 소송 끝에 승소하여 등기를 이전 완료 하였으며, 장현리 243번지 상의 토지에 연190여평의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청송빌딩이라 칭하고 준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삼처산소의 잔디관리를 위한 잡초제거와 주변나무 가지치기, 석물교정 등 기타 경관 관리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가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임진 새해에는 좀 더 많은 일가 분들이 솔선 참여하셔서 종사 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약할 수 있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고 흑룡의 용맹과 지혜로움을 이어받아 소망하셨던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壬辰年 새해 아침

仁壽府尹公派宗會
會長 沈晶求

新年辭



安孝公派宗會
會長 沈相德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국에 계신 일가여러분!

금년은 60년만에 온다는 흑룡의 해로서 그 상서로움과 희망에 찬 기대가 다른 어느해 보다도 훨씬 바람직한 한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함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수십여년간의 철권통치를 행해왔던 독재자들이 그 권좌를 물러나거나 생을 마감하였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이변으로 많은 곳에서 발생된 기상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관련된 재산 피해 또한 대단하였으며, 경제적, 국제 사회적으로도 매우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한미FTA 등 수많은 과제가 봇물처럼 밀려들던 한 해로서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되어온 소용돌이 속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종회에서는 전국의 5처묘소를 순례하며 봉행대열에 참여해 왔음은 물론 안효공할아버님의 유덕을 추모선양하고 묘소수호 및 재산관리와 송조정신으로 정성어린 제향봉행과 함께 종사발전을 위하여 안성추모당 건립을 완성하였고, 산의실기 후편 발간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국의 종원파악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효공 묘역 인근에 기확보한 670여평의 대지위에 안효공 후손들의 구심점기능을 구사하며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건평 6,500여평의 안효회관 건물을 건립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모든 필요한 사항을 절차에 의거 하자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바, 금년 중에는 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일가여러분!

우리의 종사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화합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서로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각 지역과 지파간에도 긴밀한 유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종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효공 할아버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지 어언 600여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건립되는, 더구나 할아버님이 계신 본거지역내에 새로이 형성되는 안효회관의 건립이야말로, 공의 후손들이 자손만대에 이어져 융성할 수 있는 기본터전으로서의 역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곳은 알차고 효율적이며 전국의 후손들 마음이 합쳐지는 구심지대의 본산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일가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 내어 야만 합니다. 상서로움이 승천하는 소통과 희망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종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대열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年 壬辰 元旦
安孝公派宗會
會長 沈相德

◆ 2012년 春季 時享日 案内 ◆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洪孚)	4월 5일	木	寒食	靑松邑 덕리 산33 보광산	五	三韓國大夫人	4월 4일	水	3월 14일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산32-1
	中臺山所	4월 5일	木	寒食	靑松邑 부곡리 산1 중대산	六	良惠公(휘:石雋)	4월 10일	火	3월 20일	龍仁市 포곡읍 동막리
二	閣門祗候公(휘:淵)	4월 1일	日	3월 11일	咸悅邑 남당리 산64-1	六	恭肅公(휘:滄)	4월 5일	木	寒食	坡州市 월릉면 영태리
三	靑華府院君(휘:龍)	4월 3일	火	3월 13일	安城市 당왕동 산19-6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土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三	配位 金氏	4월 3일	火	3월 13일	安城市 도기동 산64		仁順王后	4월 25일	4월 넷째 일요일		노원 공릉동(康陵)
四	靑城伯(휘:德符)	4월 5일	木	3월 15일	漣川 미산면 아미리 110		端懿王后	3월 25일	3월 넷째 일요일		구리시(동구릉 內 惠陵)
四	配位 淸州宋氏	4월 7일	土	3월 17일	淸州市 분평동 산8		淑容沈氏	4월 15일	4월 셋째 일요일		은평구 진관외동
四	岳隱公(휘:元符)	4월 15일	日	3월 25일	靑松郡 파천면 덕천 景義齊		世宗大王	4월 8일	日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五	安孝公(휘:溫)	4월 5일	木	寒食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401		宗廟大祭	5월 6일	5월 첫째 일요일		종로구 종로3가 宗廟

2011년도 종보업무보고

세상의 소식은 신문을 읽고 알 수 있듯이 우리 심문(沈門) 전체의 소식은 청송심씨종보(靑松沈氏宗報)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 일가분 그리고 파종회와 지역종회에서 어려운 재정(財政)가운데서도 정성어린 종보찬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대종회에서는 보다 더 유익한 종보를 만들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종보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능하신 편집위원 16분을 위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종보1회 발행시 6,000부를 발행하였으나 송부 요청 증가로 2012년도부터는 6,500부 발행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종보를 많이 보실수 있도록 주위 일가분들에게 권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종보발행비는 24,166,390원 이었으며 종보찬조금은 24,999,400원으로 종보발행비는 100% 찬조금으로 충당할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보발행을 무난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전국 종인 여러분의 협조와 특히 안효공종회에서 적극적인 후원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2년도에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타 종회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 화 부 -

◆ 2011년도 종보찬조금 내역

단 위	찬조명의 (파종회/지역종회)	찬조액	단 위	찬조명의(개인)	찬조액
1000만원	안효공종회	10,000,000	10만원	홍보(수사공 창원지회장), 흥국(용인), 효식(송파)	
100만원	일본종회장(廣變)	1,000,000		철식(완주/하산), 인보(영등포), 동섭(춘천)	
50만원	공숙공종회, 정이공파어비리종회, 두암종회(光州)	1,500,000		상학(쌍문동), 완구(대종회부회장), 의순(대구)	
40만원	(일산)법곳종중	400,000		상문(신천공파종회장), 리택(능주종손), 춘보(이사)	
30만원	구미종중, 마산종회, 사복시정공파종중	1,200,000		재경(인천), 재봉(이천), 재경(경남), 유택(충북)	
	정강공파마산종회,		6만원	광섭(충주)	60,000
20만원	도흥제공종회, 내자시판관공종회, 김포하성종회	800,000	5만원	광섭(공숙공종회총무), 희보(시흥), 상호(영주)	2,450,000
	선무공신종회			준섭(光州), 문수(수원), 두용(도봉구), 경종(서울)	
15만원	혜령공종회	150,000		원석·원길(충남), 윤섭(김포), 만섭(강화)	
10만원	철원종회, 정랑공종회, 부산청송회, 진주종회	900,000		인자(아산), 경섭(부산), 상의(김포), 재수(성북구)	
	남서울종회, 경남고성종회, 논산익모종회			성섭(부산), 상만(은평), 상영(수원/송죽동)	
	신천공파춘천종회, 진주정수종회			강수(인천), 우식(의정부), 재환(일산), 강섭(김포)	
7만원	사복시정공파종회	70,000		창용(남양주), 재호(춘천), 우경(光州), 재강(완도)	
5만원	진천월촌종회, 부산청송회장	100,000		정철(정읍)용섭(인천), 상만(완주), 재진(경남)	
	(파종회/지역종회) 합 계	16,120,000		일선(성북구), 호섭(양천구), 만택(용인)	
단 위	찬조명의 (개인)	찬조액		재춘(성남), 호섭(진천), 상기(동두천)	
60만원	彦村(수원/대종회理事)	600,000		우학(삼척), 극택(행신), 민섭(석관동), 상경(김포)	
50만원	재홍(대종회고문)	500,000		화복(밀양)경보(영양), 규원(구성), 기보(수원)	
30만원	상영(익산종회장), 우정(선산종회장), 재곤(신정동)	900,000	3만원	성길(도봉구), 흥보(인천) 향래(일산)	600,000
20만원	성보(청주종회장), 유섭(J웨딩홀)	400,000		동섭(충남/홍성), 흥석(강북)	
10만원	달섭(대종회 지도위원), 상균(부산종회장)	3,309,400		우섭(순천), 명섭(순천), 정구(곡성), 용진(김천)	
	민오(부산), 영구(부산/대림전기공업회장)			태식(제천), 상운(속초), 경남(당진), 우섭(강화)	
	학강(관악구), 규형(인천), 영보(명륜동)			종묵(군산), 재웅(대전), 형섭(전북), 영섭(파주)	
	재훈(김포), 정일(공덕2동), 재덕(안동)			재철(양주), 봉학(부산), 상원(강화), 무섭(대구)	
	재천(남양주), 승권(속초/조양동), 진식(광주)		2만원	호웅(대구), 상유·우만(천호동), 주한(대전)	
	일(부산), 관섭(선무공신파종회장)			기천(분당), 상기(동두천), 재원(춘천)	60,000
				(개인명의) 합 계	8,879,400
				총 합 계	24,999,400

♣ 2011년도 찬조내역 중 누락 등 착오가 있으시면 대종회 재무담당에게 필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보편집위원 위촉

청송심씨종보 편집위원회규약 제3조에 의하여 대종회 회장은 종보편집위원을 2012년 1월 2일자로 아래와 같이 위촉하였습니다.

▶ 청송심씨종보 편집위원회 명단



편집위원장
沈相殷
공인회계사
대종회부회장



편집위원회 고문
沈載烈(輔)
대종회 前 문화이사
대종회 감사



편집위원
沈成澤
대구광역시 前 부이사관
한국문인협회 회원



편집위원
沈相濬
한국문인협회 회원
(주)지에스이엔지 고문



편집위원
沈相大
KBS보도국 前 보도위원
평화통일 前 자문위원



편집위원
沈相烈
(사)한국전자무역연구원장
광운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沈佑燮
성신여대 명예교수/철학박사
費隱 한국교육연구원 원장



편집위원
沈玄根
신탄진고등학교 前 교장
대전·충남지구 종회장



편집위원
沈禎燮
한국문인협회 회원
판사공파 회장



편집위원회 간사
沈載緒
대종회문화이사
종보편집인



편집위원
沈雄燮
KCC 前 상무
공숙공종회 회장



편집위원
沈伯綱
역사학 박사
민족문화연구원장



편집위원
沈載玉
안효공종회 총무이사
공숙공종회 감사



편집위원
沈國鎮
안효공종회 前 총무이사
안효공종회 산의실기 主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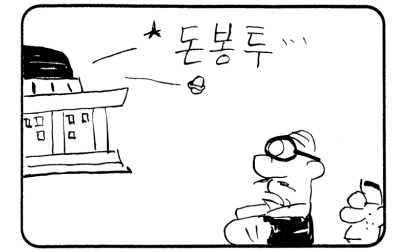
편집위원
沈南圭
청송군정
대종회 이사



편집위원
沈仁輔
부산대학교 前 교수
부산종회 고문



편집위원
沈秀永
전주양지초등학교 前 교장
대종회 이사



■ 직원채용

- 성명 : 손인숙(女)
- 학력및경력 : 강원대학교(회계학) 영화진흥위원회 20년 근무
- 발령보직 : 대종회 관리부장
- 임명일자 : 2012년 1월 2일



▲ 상화부회장께서 임명장 수여

대중회 자금 현황과 장학기금 조달방안 보고

1) 자금현황

(단위 : 원)

기준일자	2010. 12. 31 (2010년 결산 日)	2011. 4. 30 (4代會長 인수인계 日)	2011. 12. 31 (2011년 결산 日)	비 고
당좌자산	3,066,051,854	2,991,937,045	3,062,308,343	※당좌자산 정기예금/현금등
부 채	898,443,479	893,756,950	893,128,075	※부채 입대보증금등
가용자금	2,167,608,375	2,098,180,095	2,169,180,268	

2) 장학기금 조달방안

2011년도末 가용자금(可用資金:2,169,180,268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별도로 2012년도 부터 새로운 수입원(收入源)을 창출하여 연간 5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13년 부터 장학금지급 계획으로 금년부터 자금계획 등 수입증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전국 종인께 보고를 드립니다.

가) 수입증대 내역

(단위 : 원)

수입증대 항목	금 액	비고
상임이사 1명 감축 (확정)	35,000,000	2011년도 8월부터 실시(4대보험과 휴가비 폐지)
건물임대료 인상 (확정)	16,649,000	2012년 1월부터 실시(찬경회관/찬경청송회관)
위도임대료 인상 (확정)	2,000,000	2012년도 1월부터 실시(함열/연천)
은행이자증대(거래은행 변경확정) 세무업무개선수입증대 (확정)	10,000,000	2011년도 8월 시행
확 정	63,649,000	

나) 기타

- ① 찬경회관 3층(공실) 임대시 연간 1천만원 임대수입과 장학찬조금은上記 수입증대 항목에 미반영하였습니다.

② 대중회의 장학제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전국 파종회와 지역종회, 전국의 많은 종인 분들께서 격려와 후원을 약속해주시는데 대하여 자금담당부서로서 감사를 올립니다.

2012년 1월 2일

대중회 재무이사

◆ 2012년 1월 장학금 찬조내역

입금 월	파종회 / 지역종회 / 친목회	찬 조 금	비 고
1월	부산종회(지역종회)	1,000,000원	회장 : 상균
"	안동종회(지역종회)	1,000,000원	회장 : 재덕
"	전북종회(지역종회)	500,000원	회장 : 상영
"	익산종회(지역종회)	500,000원	회장 : 상영
"	안효공파 공숙공종회	500,000원	회장 : 웅섭
"	안효공파 법국종회	500,000원	회장 : 완보
"	안효공파 내자시판관공종회	200,000원	회장 : 상렬
"	악은공종회	200,000원	회장 : 의철
"	안효공파 총익공종회	100,000원	회장 : 이섭
"	청심회(친목회)	200,000원	회장 : 재안
"	파종회/지역종회 합계	4,700,000원	
입금 월	개인명의	찬 조 금	비 고
1월	의두 (대중회 지도위원)	1,000,000원	안효공파
"	두섭 (대중회 명예회장)	200,000원	"
"	호섭 (대중회 이사(안성))	100,000원	"
"	재서 (대중회 재무/문화이사)	200,000원	"
"	양섭 (청성백 유사(연천))	50,000원	"
"	개인명의 소계	1,550,000원	
1월 계	총 합 계	6,250,000원	

청심회 송년회



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기마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일가간에 친목을 다지고 있다.

회원수 80여명 중 40여명의 회원이 모여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사무국장예 양섭 일가가 선출되었고 2년간 청심회를 이끌어 가실 신임 회장에는 재안 일가께서 선출되었다.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후5시

▷장 소 : 서울 성동구 스타키빌딩

우리 심문의 친목회인 청심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이날 송년회는 부폐식으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여흥의 시간으로 유명밴드와, SBS 종환일가(아나운서)사회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일가간의 돈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1회 청송예술가회 전시회개최

우리 심문 16분 작가님 주최로 2011년 12월12일 청심회 송년모임에 맞춰 청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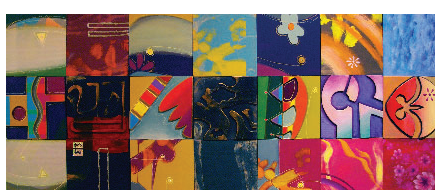
학재단기금 마련전으로 서울 성동구 소재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청송예술가회 운영위원장 심영철 교수)

이날 많은 심문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작품감상을 하였으며, 훌륭하신 우리 심문출신 작가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갈채를 보냈다.

- 대중회 문화부 -

▶심영철(청송예술가회 운영위원장) 작가소개

- 수원대학교 미술대학교수
- 단체전(430여회)
- 개인전(44회)
- 수 상
- 2011 최우수 예술인상(한국현대미술)



공숙공종회 공지사항

▶제향일 및 제향봉행 방법의 변경

(본 제향 변경 결의내용은 2012년 공숙공 기신제 제향부터 적용함)

본 제향일 및 제향봉행 방법의 변경은 의정부에 계시던 참의공, 고성공 선조님을 천장으로 모심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하는 사항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조하시어 각 제향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향 명	개정일자 및 시간	기 타
공숙공 기제사	음력 1월 12일 오후 7:00 제각	
공숙공 한식 절사	양력 4월 5(6)일 한식일 12:00 묘전	
공숙공 배위 원주김씨제사	음력 5월 11일 오후 7:00 제각	
공숙공 중추절 절사	음력 8월 15일 중추절 오전12:00 묘전	
시제향	음력 9월 23일 11:00 제각	7세조(諱 濂) 참의공 3위분 8세조(諱 順路) 고성공 양위분 9세조(諱 幹) 진사공 3위분 10세조(諱 宗元) 제천공 양위분 11세조(諱 荀) 풍덕공 양위분 11세조(諱 蓉) 생원공 3위분 11세조(諱 峯) 정언공 양위분 12세조(諱 仁祐) 첨지공 양위분

2012년 기신제 제향부터는 기일(忌日) 당일 오후 7시에 봉행합니다.

송 금 안내

任員會費 · 宗報贊助 · 獎學贊助金 등 입금구좌
·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084-17-001831

(1) 가문을 빛낸 독립운동가

호남 의병대장 沈南一 장군



편집위원 沈 禎 燮
한국문인협회 회원
판사공파 회장

‘제 나라를 위한 것도 죄가 될진대 남의 나라를 빼앗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대장부가 비록 너희에게 사로 잡혔지만 쥐같은 네놈들과는 웁다, 그르다를 따지고 싶지 않다.’ 고 왜적을 향해 대성일 같하고 1910년 7월 23일 대구 감옥에서 40세의 나이로 순국하니 아! 의병대장 심 남일 장군이라.

장군은 1871년 2월 10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새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청송이요 호는 덕홍이며 자는 남일, 본명은 수택守澤인데 선계는 지성주사공 계년知成州事公繼年의 17대손으로 태어나니 천성이 총명하고 일찍이 학문을 닦아 사서 삼경에 능통하였고 병서를 읽어 장래의 국난에 대비하였다.

향리에서 면장, 향교 장의와 서당을 열어 훈장으로 재직하면서 애국과 우국의 일념으로 후진을 가르쳤다. 1895년 민비가 일제에 의해 살해되고 1905년 러·일전쟁

후 일제의 침략이 극대화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국권을 회복하는데 몰두하였다. 그때 의병장 김율이 의병을 일으키자 달려가 부장副將이 되어 장성, 영광, 함평, 남원, 보성, 장흥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자 11월 1일 함평 신광에서 항일의 기치를 올리고 의병대장에 추대되어 1908년 3월 강진 오치동 첫 전투를 전개하여 왜적 수십명을 살상하고 무기를 다수 노획하여 의병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 후 4월 15일 장흥 관암에서 왜적 3명을 사살하고 6월 19일 남평 장담원 전투에서 왜적 5명, 6월 25일 능주 노구두에서 왜적 5명을 사살하고 말 2필 등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7월 30일 영암 사촌전투에서 왜적 10여명을 죽이고 장흥 신평, 해남 선내, 능주 돌정 등지에서 왜적 100여명을 살상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장군과 선봉장 강무경이 악전고투로 인하여 병석에 눕게 되어 통수권을 부장에게 넘겨주고 다음 해 봄까지 병마와 기한을 동반하고 유리전전하면서 은신하였다.

장군은 엄격한 군율중에서도 언제나 부

하 장졸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민초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은신중에도 민중들의 존경과 보호를 받아 쾌차할 수 있었다.

1909년 3월부터 강현수, 박봉주 등과 의병을 다시 모아 남평 선등에서 왜적과 조우하여 5명을 사살하고 인근 의병부대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담양의 전수용, 보성의 안규홍과 연합하여 나주, 광주, 능주에서 내습해온 왜적들을 대치 등지에서 70여명을 살상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장군은 전남 12고을에서 몰려온 왜구 400여명의 포위공격을 받고도 다수를 살상하였기 때문에 민초들은 장군의 신출귀몰한 전략에 감동하여 용기 백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동요까지 생겼다.

‘남일이가 용마를 타고
산 밖으로 솟아오르면
현수는 풍운을 조화하여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여기서 남일은 장군을 가리키고 현수는 장군이 병마에 신음하고 은신할 때 의병을 지휘한 의병장 대리 강현수를 지칭한 것이다. 5월 12일 보성 천동에 주둔한 의병장 안규홍을 만나 연합작전을 펴서 왜적 5명을 죽이는 등 대단한 전과를 올렸다. 연합전선이 순조롭게 구축하여 적의 섬멸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의병을 해산하라는 고종의 조서가 내려와 울분을 달랠 길이 없었으나 일제의 술책에 의해 내려진 조칙인줄 변연히 알면서도 1909년 7월 21일 영암군 금마면 고인동에서 양천호곡하면서 해산하였다.

‘쓸쓸히 장수랑 군사들은 눈물로 이별되고 고인동을 떠남에 말조차 더디구나. 왜적을 없앨날이 언젠가 있으리니 지난 3년 맹세한 일부터 잊지마세.’

의병을 해산한 뒤 능주에서 신병을 치료하던 중 왜적에게 체포되어 광주감옥을 거쳐 대구감옥에 이감되었으니 끝까지 일제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만행을 질책하다가 1910년 7월 23일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였다. 정부에서 장군의 공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고 1973년 후학들이 광주 공원에 순절비를 세웠으며 1977년 조경한, 신흥렬이 합심하여 장군의 혼이 깃든 ‘의병대장 남일 심공 진지록 義兵大將南一沈公盡至錄’을 발간하였는데 임정 국무위원 조경한은 서문에서 ‘아! 공의 의열을 추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의 문자를 보고 싶어할 것이다.

대개 이 유록은 문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리 긴요하지 않은 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한 자 한 구절이 충성스러운 참된 마음과 의열의 담력, 그리고 열혈과 통탄의 눈물로 절정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 고 장군 애국충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해같이 밝고 달같이 밝던 이강산
홀연히 더러은 티끌에 덮여 앞길 캄캄한데
미쳐 밝은 날 맞이 못한채 지하로 돌아가니
명든 피 푸르러 천년은 가리라’

장군이 순국할 때 읊은 단심가丹心歌는 자손만대에 유전되고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바람직한 인성교육’



편집위원 沈 佑 燮
성신여대 명예교수/철학박사
費隱 한문교육연구원 원장

교육철학의 본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기른다는 교육의 근본목표를 포괄하여 지·덕(知·德)을 겸비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함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인성과 품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또 이루게 하는 것이 교육자 본연의 과제라 본다.

우리는 흔히 현대 교육의 위기를 표현하는 말로 교실 붕괴나 학교 붕괴나 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말은 교육의 본령인 진리 탐구와 인격도야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인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다. 이 같은 전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는 실리지상주의로 치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 인심은 날이 갈수록 위태롭게 되고 윤리·도덕은 날이 갈수록 땅에 떨어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교육자에게는 지·덕(知·德)을 겸비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생각건대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인간상 즉 전인적인 인물인 지성인을 양성하는데 있다면 지성인과 지식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성인이라 할 때 그 性은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부여한性>의 의미로써 신령스럽고 소박성을 지닌 명덕(明德)과 같은 개념이며,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는 흠이 없는 진주와 같은 개념이다. 지성인의 지(知)는 양지(良知)와 같은 지로서 알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인은 윤리·도덕의 가치관을 갖추고 있는 기초 위에 학식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옛날의 성인과 같은 인물을 의미한다. 학식이 많고 아는 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인간가치관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참다운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이요, 동시에 전인적인 인물이라 일컬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인물을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인과 지성인은 구별 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덕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실행해야 할 학교교육을 생각해 볼 때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관념이 일치되는 데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자

자신이 교육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투철한 교육철학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철학이 결여되고서는 바람직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환언하면 교육작용의 근본·본질을 탐구하고 연구해내는 것이 교육철학의 근본 문제임을 알아야 하겠다.

따라서 교육의 최고 과제는 무엇보다도 지·덕을 겸비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교육자는 즐기차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과 품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또 이루게 하는 것이 교육자의 본연의 자세이며, 본연의 과제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현대교육의 붕괴나 하는 말은 입시교육에 치중되어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오늘날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이같이 지식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전환하여야만 교육의 본령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전인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가정 교육이라 볼 수 있다. 고전에 ‘조단호부부(造端乎夫婦)’라는 말이 있는데 부부가 가정교육의 시발점이고 윤리의 시발점이 된다는 말이다. 부모가 자기의 말은바 명분을 다 하고 부모로서의 개념을 충분히 발휘 할 때 자녀들을 교화 시킬 수 있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행위를 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심리분석학에 의하면 3세에서 6세 사이에서부터 인격 형성이 70%~80% 가량이 형성되고 나머지 20%~30%는 14세

에서 16세쯤 이루어 진다고 하였으니 어린시절부터의 가정 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 있다.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의 온전한 인격형성은 부모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명덕과 사랑의 조화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볼 때 가정 교육과 사회 교육을 한 포기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튼튼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듯이 사람 된 바탕인 온전한 인격이 형성된 바탕 위에 지식의 조화를 이룩해야만 지식인 아닌 지성인, 즉 전인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교육제도 개선만으로 전인적인 인물을 양성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은 지성인 보다 지식인 교육 즉 물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사교육이 팽배 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위기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국의 학부모, 학생, 교육자들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함께 지덕을 겸비한 전인교육에 매진 할 때 그 효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와 같은 전인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력 사관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가 교육철학관을 가지고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정교육부터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 전인교육으로 전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인성교육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바람직한 자녀교육이 확립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중회탐방-(1) 安孝公宗會

대중회와 종인들 간의 원활한 소통, 돈독한 유대관계 구축 및 종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2012년부터 파종회와 지역중회 탐방 기사를 종보에 게재합니다. 그동안 선대조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보았으나, 파종회와 지역중회들의 활동에 대한 소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탐방 순서는 역동적으로 송조돈족 사업을 펼쳐 전국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대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탐방 요청을 하는 중회 등을 대상으로 대중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중회 탐방은 안효회관 건립 등 우리 심문 전체에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있는 안효공중회로 정했습니다. 중회 탐방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파종회와 지역중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중회 문화이사(청송심씨 종보편집인)

중회 탐방기(1) 안효공중회(安孝公宗會)

- 일시 : 2012. 1. 17(화) 오후 4시
- 장소 : 안효공중회 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86-3 안효회관)
- 탐방자 : 심재서(대중회문화이사, 종보편집인), 심백강(민족문화연구원장, 대중회 종보편집위원, 심응섭(공속공중회 회장, 대중회 종보편집위원)
- 참석자 : 심상용(안효공중회 고문), 심광택(안효공중회 부회장, 안성중회장), 심재욱(안효공중회 총무이사, 대중회 종보편집위원), 심양섭(안효공과 수은관공침정공중회회장), 심현근(대전·충남지구 중회장, 대중회종보편집위원) 외 10여명의 안효공 후손들이 배석.

1. 안효공중회 구성

- 1) 연혁
현대적인 중회는 수원과 안성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중회를 1974년에 통합하여 결성되었으며, 이전에는 일가들이 학식이 높고 추앙을 받는 종인 중에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분이 도유사가 되어 중회의 대소사를 처리하였다.
- 2) 종원과 조직 구성
가) 종원
족보 수록 또는 기타 혈연에 의한 안효공 후손을 모두 합하면 전국에 약 13만여명이 산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심문전체의 22만의 60%)
나) 조직
① 임원진
- 고문(6명) : 魚澤 永澤 斗燮 行鎮 相龍 庚周
- 지도위원(12명) : 宜亨 奭鎭 衡鎭 相八 彦浩 載鴻 在淪 錫圭 太平 甲輔 寬錫 成輔
- 회장 : 相德
- 부회장(2명) : 光澤 敏玉
- 운영위원(11명), 상근이사(6명), 감사(2명), 이사(98명)
② 집행부 :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관리이사, 행정보조
3) 회의체
가) 정기회의 : 총회, 이사회, 지도위원회, 운영위원회
나) 수시회의 : 종재관리위원회, 추대심의위원회, 안효회관건립 전문위원회

2. 안효공(諱 : 濫) 행적(行蹟)

- 1) 5세조 안효공(安孝公, 1375~1418)은 조선조 개국공신인신 4세조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의 7남 중 5남으로서, 휘(諱)는 온(濫), 자(字)는 중옥(仲玉)이다. 12세에 국자감(國子監)에서 시행하는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으며, 세종대왕의 왕비이신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의 생부이다. 대광보국 송록대부 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을 역임하였고,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으로 봉해지셨다. 대사헌(검찰청장), 형조판서(법무장관), 호조판서(재정경제부장관), 한성부판윤(서울시장), 이조판서(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하시고, 44세에 의정부영의정 정일품(議政府領議政 正一品, 국무총리)이 되셨다. 시호(諡號)는 안효(安孝)이시고, 부조묘(不祧廟, 나라에 큰 공훈이 있어 돌아가신 사람의 신주를 사당에 모셔 자손이 있는 한 영원토록 제사를 지내게 하는 군주(君主)의 특전)의 은전(恩典)을 받으셨다. 비(妣)는 삼한 국대부인(三韓 國大夫人) 순흥안씨(順興 安氏)이다.
- 2) 상왕인 태종의 외척(外戚) 배격정책과 좌의정 박은(朴堧)의 무고로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사약을 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나, 문종 때 복권되셨다. 공의 유훈에 따라 후손들은 반남 박씨(潘南 朴氏)와의 혼인을 피하게 되었다.
- 3) 우리 심문(沈門)에서 배출(輩出)하신 3분의 왕후(三王后)가 모두 공(公)의 자손이고, 13분의 상신(相臣,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중 10분이 공(公)의 자손이며, 22만여명 전체 의 문중 全 종인(宗人)의 약 60%가 공(公)의 자손이다.

3. 송조돈족(崇祖敦族)사업

- 1) 연중 봉향행사
당초에는 안효공 묘소에 후손들은 근접할 수조차 없었고, 공의 외손(外孫)인 문종, 세조, 예종, 성종 등에 의하여 관리 및 제향이 봉행되었다. 산의실 및 안성에 묘소를 모신지이래 지금으로부터는 100여년 전부터 후손들이 묘하에 이주하여 정착함으로써 안효공과 배위 순흥안씨는 수원과 안성에서 안효공중회에 의하여 묘소관리, 제향 및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제향봉행

안효공	배위(순흥안씨)
- 사절사 -	- 춘추제향 -
설, 한식, 단오, 추석	춘향(음 3월 14일), 추향(음 9월 14일)
- 기신제 -	- 기신제 -
음 12월 24일(부조묘 산의실 사당)	음 11월 23일(산의실 사당)

- 2) 후손 친목행사
매년 춘·추 시조(始祖) 및 영릉 소헌왕후(昭憲王后) 제향(양 4월 28일) 시에 버스를 대절하여 많은 종인들이 종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가들 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할 수 있는 촉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4. 안효공중회의 자랑

- 1) 매년 단오절사에 전국에서 500~600여명의 후손들이 모여 성대하게 제향을 올리며, 안효공의 정신과 유덕을 추모 선양하고 있다.
- 2) 안효공 후손으로 조선후기 복리전서(福利全書), 한중수필(閑中隨筆) 등 모두 110여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긴 심대윤(沈大允, 1806~1872) 선조의 업적을 선양하는 사업에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대중회편집위원)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제1차 심대윤 선생 학술발표회 계획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일시 : 2012. 2. 27(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 주최 : 백운 심대윤선생 기념사업회
▷ 축 사 : 심대평(자유선진당대표) 외
▷ 발표자 : 심우섭(성신여대명예교수), 이재운(중앙대명예교수), 심백강(민족문화연구원장)
- 연락처 : 011-9150-3619, 010-8971-7031

5. 중회 역점사업

- 1) 안효회관 건립
안효공 묘소와 부조묘 사당이 계신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앞에 대지 667평, 연건평 6,500여평의 안효회관을 금년에 착공하게 된다. 이 사업은 안효공 중회는 물론 우리 심문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역사적인 사업이다. 안효공의 행적(行蹟)과 음덕(蔭德)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송조(崇祖)의 회관이 될 것이다.
- 2) 안효공 부조묘 사당 확장
10여평의 현재 사당이 협소하여 향사 시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금년에 2배로 증축하기로 하였다.
- 3) 안효공 배위 재실 신축
안성에 있는 안효공 배위인 삼한 국대부인(순흥안씨) 재실이 노후되어 금년에 35평 정도의 전통한옥으로 새로 신축하기로 하였다.

6. 안효공 후손들에 대한 당부

- 1) 심광택(안효공중회 부회장) : 안효공 후손으로서 대를 이어서 지금과 같이 송조돈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2) 심양섭(수은관공침정공중회회장) : 일가 간에 화합이 제일 중요하므로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종사일에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여 일가 간에 화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3) 심백강(민족문화연구원장) : 4세조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 1328~1401) 할아버지께서는 청백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셨고, 자손들에게도 근검을 강조하시어 우리 심문이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지셨다. 선대조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 받아 실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7. 대중회 건의사항

4세조 묘소 진입로가 묘전 한가운데에 돌계단으로 되어 있어 참배 시 한가운데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따라서 묘전 양쪽으로 진입로를 만들거나 우측 편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돌계단은 제거, 잔디로 재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다.

8. 기타 의견교환

- 1) 종보는 가능한 한 한글을 많이 사용하여 젊은 종인들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부분은 한문을 병기토록 한다.
- 2) 기제(忌祭)는 작고일(忌日) 하루 전 자정을 못 지킨다면 기일 당일 저녁 시간대 많은 종인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8시로 봉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의례준칙에도 기일 저녁시간에 봉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후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변경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그러나 기신제 날자와 시간은 각 중회 실정에 맞도록 판단하여 정리할 사항이다.
※ 참고로 공속공중회(회장 : 응섭)는 금년부터 기일(忌日) 당일 오후 7시에 봉행한다.
- 3) 제향 집례 시 옮기는 기존의 옮기에 의하며 한문으로 하되 안내를 위하여 한글로 안내하며 혼동을 방지하고, 변경은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다.
※ 탐방취재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안효공중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심백강 종보편집위원과 대담을 나누는 안효공중회 심재욱 총무이사

明德齋

7世祖 內資寺判官公(諱:潏)派 宗會



▲ 명덕재 전경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328번지 우랑동(牛浪洞)

◆ 明德齋 建立記

우랑동(牛浪洞) 산골짜기 도랑물이 졸졸 흐르고 꼬꼬리가 슬피우니 순국(殉國)하신 할아버지의 넋을 달래는 듯.

청송심씨(靑松沈氏) 7世祖 내자시 판관공(內資寺判官公)의 휘(諱)는 원(潏)이고 자(字)는 도원(道源)이며 공(公)의 증조(曾祖) 휘(諱) 덕부(德符)는 좌정승(左政承) 청성백(靑城伯)이시고 조(祖)의 휘(諱) 온(溫)은 영의정(領議政) 안효공(安孝公)이시며 고(考)의 휘(諱) 회(繪)는 영의정(領議政) 시호는 공숙공(恭肅公) 이시다.

비(妣)는 원주김씨(原州金氏)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이신 김연지(金連枝)의 따님이시다.

공(公)은 정통정사(正統丁巳) 세종 19년 서기 1437년 경상도 선산(慶尙道 善山)에서 三男으로 태어나서 문음(門蔭)으로 내자시판관 봉열대부(內資寺判官 奉列大夫)

가 되어서 세조 13년 정해(丁亥) 서기 1467년에 점마별감(點馬別監)으로 함길도(咸吉道)에 출장중(出張中) 오월에 함흥(咸興)에서 이시애(李施愛)의 반란군(叛亂軍)과의 싸움에서 피화순국(被禍殉國)하시어 향년(享年) 31세(歲)였고 공(公)의 二男 휘(諱) 순경(順徑)께서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되시매 공(公)의 중형(仲兄) 휘(諱) 한(瀚) 이경공(夷敬公)께서 기(既)히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봉(策封)되었음에 이은(移恩)하여 순충 적덕 보조공신(純忠 積德 補祚功臣)에 이조참판(吏曹參判)이 증직(贈職) 되셨고, 또 손자(孫子) 연원(連源)께서 영의정(領議政)이 되심에 공(公)께서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 左贊成)이 가증(加贈) 되셨다.

공(公)께서 비록 31세에 피화순국(被禍殉國)하시어 조세(早世)하셨으나 당시 부인 이씨(夫人 李氏) 나이 27세(歲)로 가정

과 三男二女를 법도있게 잘 다스리시어 모두 성취 시키신 후 中宗四年 서기 1509년 5월에 별세(別世) 하시니 수(壽)가 69세(歲) 이셨고 9월에 파주 광탄 우랑동(坡州 廣灘 牛浪洞)에 합장(合葬) 되셨다.

공(公)께서 유덕(有德) 하심은 실로 청송심문(靑松沈門) 11분의 불천지위(不遷之位) 중 8世 호양공(胡襄公) 휘:순경(諱:順徑), 11世 청계부원군(靑溪府院君) 휘:우승(諱:友勝), 11世 충익공(忠翼公) 휘:중겸(諱:忠謙), 13世 청운군(靑雲君) 휘:명세(諱:命世)는 공(公)의 자손(子孫)이며, 조(祖) 휘:온(諱:溫) 안효공(安孝公)의 장자(長子) 영중추공(領中樞公)의 차자(次子) 한성 판관공(漢城 判官公) 휘:치(諱:湣)의 사손(嗣孫)으로 9世 달원(達源)이 출계(出系) 하였고, 공(公)의 중형(仲兄) 휘:한(諱:瀚) 이경공(夷敬公)의 양자로 8世 휘:순경(諱:順徑) 호양공(胡襄公)이 출계(出系)하여 집안의 번성(繁盛)함을 더욱 밝게 하였으니, 가을이 깊으면 열매가 떨어지고 물이 흘러가면 도랑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치가 그러한 것과 같이 내자시판관공(內資寺判官公)의 음덕으로 유덕(有德)한 인물(人物)과 성덕군자(成德君子)가 누대(屢代)로 배출(輩出) 되어 공덕(功德)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結果)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같이 청송심씨(靑松沈氏)는 왕비(王妃) 세종대왕비(世宗大王妣) 소헌왕후(昭憲王后) 명종대왕비(明宗大王妣) 인순왕후(仁順王后), 경종대왕비(景宗大王妣) 단의왕후(端懿王后) 3분이며 인순왕후(仁順王后)와 단의왕후(端懿王后)는 공(公)의 후손(後孫)이고 상신(相臣) 13분 중 9상신(相臣)이 공(公)의 자손(子孫)이다. 청송심문(靑松沈門)에 대과급제(大科及第) 196명, 무과(武科) 350명, 대사헌(大司憲) 2명, 공신책록(功臣策錄)이 400여명이다. 현재(現在) 우리 문중에 22만여명의 일가가 있으니 집안의 현달(顯達)과 번창(繁昌)함이 있

고 22만여명의 일가 중 절반 이상이 5世祖 휘:온(諱:溫) 안효공(安孝公)의 덕(德)이 내려온 것이고, 또한 그 절반이 7世祖 휘:원(諱:潏) 내자시판관공(內資寺判官公)의 덕(德)을 얻었으니 조세(早世)하신 공(公)의 덕(德)이 어찌 작을 수 있으며, 그 덕(德)이 밝게 빛나는 명덕(明德)을 자손(子孫) 대대(代代)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7世조(휘:원) 내자시판관공(7世祖(諱:潏) 內資寺判官公)의 덕(德)을 밝히는 명덕재(明德齋)를 건립(建立)함에 공(公)의 묘하(墓下) 자손(子孫)의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자금(資金) 조달(調達)에 합심(合心)하여 공(公)께서 피화순국(被禍殉國)하신지 544년이 되어서야 숙원(宿願)이 이루어졌으니 조금이나마 자손된 도리(道理)를 한 것 같다.

특히, 본 종회 회장 상열(本宗會會長 16代孫 相烈)과 총무이사 17代孫 진섭(總務理事 鎭燮)은 시공(施工)부터 준공(竣工)까지 지대(至大)한 관심(關心)과 헌신(獻身)에 노력(勞力)을 하여 건립(建立)한 재실(齋室)을 바라보니 마음이 흐뭇하다. 이에 7世조(휘:원) 내자시판관공(7世祖(諱:潏) 內資寺判官公) 자손(子孫)들은 공(公)의 덕(德)을 밝히는 명덕재(明德齋)를 자손(子孫) 만대(萬代)로 그 음덕(蔭德)을 전(傳)하고자 한다.

7世조 휘:원 내자시판관공과종회 임원(7世祖(諱:潏) 內資寺判官公派宗會 任員)과 묘하(墓下) 후손(後孫)들은 종중(宗中) 재산(財産)묘소(墓所) 시제(時祭) 관리(管理)에 헌신적(獻身的)으로 그 책임(責任)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西紀 辛卯 2011年 10月 22日

16代孫 沈相直 謹撰
시공사: 일하는 사람들 대표 유명성
謹立: 靑松沈氏 判官公(諱:潏)派宗會

一松公 영정 포쇄사

2011년 11월 20일(음 10월 25일)



初獻: 鎬元 亞獻: 相烈 終獻: 承寬
執禮: 洪燮 大祝: 相弘

삼한 국대부인 기신제 봉행

2011년 12월 17일(음 11월 24일)



初獻: 相德 亞獻: 광택 終獻: 현근
執禮: 재욱 大祝: 정섭

안효공 기신제 봉행

2012년 1월 17일(음 12월 25일)



初獻: 행진 亞獻: 백강 終獻: 훈보
執禮: 재욱 大祝: 양섭

대구종회 제2대회장 慕山 沈載完 박사 별세



沈載完 (대종회 고문)

국문학자 모산(慕山) 심재완(沈載完) 박사께서 11월 15일 향년 93세로 별세하셨다.

고 심재완 박사는 1918년 구미 선산에서 태어나 시어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청구대학교 경북대 대학원(국문과)을 수료했으며, 72년 영남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남대 국문과 교수로 지내면서 대학원장, 학생처장, 박물관장 등을 역임하셨다.

평생 고시조 연구와 자료 정리에 힘써온 고인은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석보상절 영인해제」 「청구영언연민본 영인해제」 「한국의 관모(冠帽)」 「시조의 문헌적 연구」 「교본역대시조전서」 등이 있다. 특히 저서 중 「교본역대시조전서」와 「시조의 문헌적 연구」는 한국문학사의 중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고 심재완 박사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88년 제자들을 중심으로 대구에 모산학술재단과 모산학술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인께서는 1971년부터 23년간 대구종회 제2대 회장직을 맡아 종인의 화목 단결과

승조사상을 일깨우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재임기간 동안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종친들의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계보(系譜)를 잃은 일족에게 뿌리를 찾아주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유족으로 부인 조정순여사와 5남이 있다. 5남은 흥필(<주>택산 대표이사), 정필(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 명필(인하대 교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원필(안동대 교수), 문필(화가)씨이며, 장례는 11월 19일 모산학술재단장(葬)으로 많은 제자들과 지인들의 애도하에 치러졌다.

(자료제공: 대구종회)

▶자료제공

관향(貫鄉) 소식



편집위원 沈南圭

청송JC 회장에 심칠섭 종인 취임

청송JC 제38대 회장에 심칠섭(沈七燮) 종인이 지난 12월 14일 지역 유지 및 JC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행사를 가졌다.

청송군 부동면 부일리 출신인 심회장은 “변화와 실천이라는 JC의 슬로건 아래 회원들과 함께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재일교포 도예가 제15대 심수관 종인
지난 12월16일 본향 청송 방문



▲송고택에서 지역 종인들과 기념촬영(가운데 심수관씨)

정유재란(1598년)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후 400여년동안 조선의 혼을 지켜온 세계적인 도예가 제15대 심수관(沈壽官) 종인이 지난 12.16~12.17 일 양일간 본향(本鄉)인 청송을 방문했다.

관(沈壽官) 종인이 지난 12.16~12.17 일 양일간 본향(本鄉)인 청송을 방문했다.

청송군 초청으로 지난 2009년에 이어 두번째 이곳 청송을 방문한 심씨는 도착 즉시 현지 거주 우리 종인의 안내로 보광산의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저녁에는 세거지(世居地)인 덕천마을 내 식당에서 한동수 청송군수가 주재한 환영만찬에 참석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종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깊은 정을 나누었다.

은 정을 나누었다.

특히 심씨의 이번 한국방문에는 MBC와 일본의 후지TV 양측 방송사가 공동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동행하면서 취재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방문 첫 날 밤을 조선시대 9대 만석꾼집(99칸)인 송소고택에서 하루를 숙박한 심씨는 다음날 덕천마을과 청송읍내 소재한 소헌공원 내 잔경루와 운봉관 등 선조들의 유적지들을 두루 둘러보는 등 조국에 대한 향수와 뿌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1박2일 본향 방문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다.

청송군청 공직자 모임「보광회」2011년도 보광가족 송년행사 개최

청송군청내 근무하는 심문(沈門)공직자들의 모임인 보광회(普光會, 회장 심남규)는 지난 12월 21일 저녁 7시

청송읍 소재 푸른솔 한우식당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보광가족 송년모임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날 모임은 지역에 거주하는 퇴임한 원로 선배공무원 6명을 초청하여 위로와 만찬을 겸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마쳤다.

심성보 종인 장녀 혜란 양 제53회 사법고시 합격 축하연 열려



▲심성보 종인 장녀 혜란 양 사법고시 합격 축하연 모습 (12.17일 17:00 안동시내 사라별 뷔페홀)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출신으로 악은공의 22세손인 심성보 종인의 장녀 혜란 양(29세)의 제53회 사법고시 합

격 축하연이 지난 12월 17일 오후5시 고향인 안동시 법흥동 소재 사라별 뷔페식당에서 일가 친척과 지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혜란 양의 앞날을 축하 해주었다.

성보 종인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 딸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혜란 양도 “앞으로 우리 사회

의 흐트러진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어둡고 구석진 그늘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계층들을 돕는데 노력하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여러 어르신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녀를 훌륭하게 뒷바라지 하여 금번 우리 심문(沈門)의 위상을 지역사회의 드높인 성보 종인은 현재 삼성건설 기술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이곳 고향에 노모(老母)가 계시며 부인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고 혜란 양은 서울 외국어고와 명문 사학인 이화여자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공 시 사 앙

1. 대총회임원(이사)은 현재 적정수입으로 2012년도에는 추천을 받지 않으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쪽보 접수는 매년 12월(1개월) 한 달만 접수합니다.
3. 임원(이사)회비를 2년이상 미납시는 임원의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 하였습니다.
4. 대총회에서 책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전화를 거의 매일 접수하고 있으니, 절대로 구매하지 말고 대총회로 확인하시고 반송하시기 바랍니다.
5. 대총회 각종 회비·헌성금·찬조금 입금구좌를 1개로 통일 하였습니다.
▶농협 : 084-17-001831(청송심씨대총회)
6. 찬조금, 회비 등 공지내역에 누락이 있을 시 필히 대총회 재무담당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송심씨대총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02-2267-7857, 02-2267-9339 (2대만 사용)
(기존의 02-2263-7897은 해지되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월의 호국인물 심일(沈鎰) 소령



沈鎰 소령

심일 소령은 典書公(전서공) 之伯(지백)의 후손이다.

2012년 '1월의 호국인물'에 6·25 전쟁 당시 육탄 돌격으로 북한군 자주포를 격파한 심일(1923. 6~1951. 1) 육군

소령이 선정됐다고 전쟁기념관 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의 심 소령은 서울대 사범대 재학 중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949년 육사 8기로 임관했다. 6·25 전쟁이 터진 뒤 6사단 7연대 대전차 포중대 2소대장으로 복무하던 그는 북한군의 자주포가 접근하자 포탑으로 올라가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져 격파했다.

경북 영천 304고지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운 심 소령은 51년 1월 26일 강원도 영월지역 전투에서 28세의 나이로 산화했다.

(2012. 1. 1 중앙일보 발췌)

任 員 會 費

갑보	2011	300,000원	대총회 부회장
춘보		50,000원	합정동
경섭		50,000원	인천
상균		50,000원	부산총회장
현보		50,000원	서울
성섭		50,000원	부산 동래
재선		50,000원	공주
용규		50,000원	회현동
상록		50,000원	장성
능광		50,000원	청송 유사
완택		50,000원	"
재구		50,000원	동대문구
재학		50,000원	남원
상철		50,000원	부안
재영		50,000원	당진
동출		50,000원	삼척
재선		50,000원	인천
재균		50,000원	光州
재주		50,000원	진주
주섭		50,000원	진주
규실		50,000원	창원
점보		50,000원	창원
성보		50,000원	고양
우홍		50,000원	강릉
형찬		50,000원	김포
양섭		50,000원	김포
정섭		50,000원	전남
상조		50,000원	영등포구
원보	2011~12	100,000원	과천
인섭	2012	50,000원	춘천
상영	2012	50,000원	익산총회장
재서	2012	50,000원	법곡종중
재열	2012	50,000원	"
완보	2012	50,000원	"

宗 報 誠 金

▶2011. 12		
안효공종회	10,000,000원	
우정	300,000원	선산총회장
성보	200,000원	청주회장
달섭	100,000원	대총회 지도위원
홍보	100,000원	수사공창원지회
상길	100,000원	울산
재천	100,000원	남양주시
언촌	100,000원	수원(대총회이사)
승권	100,000원	속초 조양동
관섭	100,000원	선무공신파총회장
진주정수종회	100,000원	
상만	50,000원	은평구
성섭	50,000원	부산 동래
홍석	50,000원	강북
상윤	30,000원	속초
상유	30,000원	
주한	30,000원	대전
태식	30,000원	제천
상기	20,000원	동두천
재원	20,000원	춘천
▶2012. 1		
논산익모종중	150,000원	
남서울종회	100,000원	
영배	50,000원	인제
남섭	50,000원	김포
종홍	50,000원	부천
영종	50,000원	보령

★ 회비 및 증보성금에 감사드립니다.

바로잡습니다

- ▶제향성금 건
 - 심의택(대구)→ 심리택(능규종손)
- ▶증보찬조 누락분(중보92호)
 - 심상유 (2011.11.22)
 - 심재수 50,000(성북구)
 - 심준섭 50,000(광주)
 - 심상기 20,000(동두천)
 - 정이공파 어버리종회 500,000(2011년 10월)
 - 4세조 청성백 배위(청주송씨) 100,000→200,000(도총제공종회)
- ▶판관공종회 공지사항 누락분
 - 상팔(광주) : 명덕재 준공식 헌성금 1,000,000